

# 대외무상원조사업 평가보고서

## I. 평가목적 및 방향

## II. 2005년도 사업추진현황

1. 사업추진여건 .....	50
2. 사업추진 .....	51
3. 사업추진실적 .....	52
4. 사업결과분석 .....	55

## III. 평가 및 문제점

1. 종합평가 .....	57
2. 문제점 .....	57

## IV. 개선조치사항

1. 기초치사항중 정책부분 .....	62
2. 기초치사항중 사업부분 .....	65
3. 향후 추진과제 .....	68

〈첨부〉 2005년도 OECD/DAC 회원국 ODA 지원현황(잠정)

## I. 평가목적 및 방향

- 2005년도를 중심으로 그간의 KOICA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존 사업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 UN천년개발목표 (MDGs) 달성기여도 등 KOICA 원조의 국제적 수준 진단

※대부분의 선진공여국들은 MDGs 채택 이후 원조정책의 기본방향과 시스템을 MDGs 달성을 위한 체제로 개편중

- 평가를 통해 노정된 문제점은 개선하고, 나아가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발원조방향 정립

- 개도국의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원조전략수립
- 지속발전 가능한 원조방향 및 원조기법 모색
- 국제사회와의 조화를 고려하되 우리만의 독특한 경쟁력도 제고
- 내부평가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업무발전방안 도출

- 개발원조 내용과 형식을 선진원조형태로 발전
- 세계원조동향, KOICA 무상원조규모 증가, 추후 OECD/DAC (개발원조위원회)가입 등을 고려,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원조체제로 개편

※U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ODA의 확대·조직개편 및 전략수정 등 일련의 개혁 실시중

- 선진원조모델과 우리의 비교우위를 적절히 접목한 원조형태로 전환

## II. 2005년도 사업추진현황

### 1. 사업추진여건

- ODA 규모확대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 가중

- '05. 9월, 제60차 UN정상회의에서 '06년부터 MDGs를 포함한 국제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국별전략의 채택 및 실행을 결의

※2005년도 DAC 회원국의 ODA 지원규모 잠정치는 1,065억불로 GNI대비 0.33%

→ 2000년 0.22% 대비 0.11%p 증가

- 개발재원 마련을 위해 ODA 확충에 대한 구체 일정표에 합의

※2015년 ODA/GNI 0.7% 달성을 위하여 2010년까지 추가로 500억불 지원 및 ODA/GNI 0.5% 달성, 최빈국 지원 GNI 대비 0.2%까지 확대

- 우리정부는 '05.11월, '국제개발협력 개선 종합대책'에서 MDGs 달성연도인 2015년을 목표로 ODA규모를 GNI대비 0.25% 수준까지 확대 검토방침 명시

- ODA의 질적개선 요구

- ODA 양적확대는 물론, 질적 측면에서도 점진적·단계적 언타이드화, 최빈국 지원강화, MDGs 달성 등 국제화 요구

- OECD는 2005년 2월 파리 고위급 포럼에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을 채택, 원조의 질적 개선을 위한 중점추진과제 도출

※수원국의 주인인식 제고, 원조공여국간 원조절차와 실행의 조화,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 원조정책의 조율, 원조의 성과지향, 상호공동책임 등

- 우리정부는 2010년을 전후로 OECD/DAC 가입을 추진 중이므로, OECD 기준에 부합하는 원조내용으로 개선 필요

#### ■ 잦은 국제적 재난피해 발생

- 남아시아 지진해일, 파키스탄 지진, 중미 허리케인 등 대형재난 발생
- 재난구호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한 사업수행체계 확립 필요

#### ■ 정부, 「국제개발협력 개선 종합대책」 수립 ('05. 11)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설립 ('06. 1)
- 한국형 원조모델 정립, 추진시스템 개선, 효율성 제고, 인프라 구축, 국민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 개선방안수립

#### ■ 국민의 ODA 관심증대

- 해외봉사단파견 확대, 이라크 재건지원, 국제재난구호 등으로 KOICA사업 인지도 증가
- 국민의 관심증대는 사업구성과 내용이 국민과 함께하는 형태로 변화될 것을 요구

## 2. 사업추진

### 가. 사업목표

- 개도국 빈곤퇴치를 위해 수원국의 자립능력 강화 집중지원
- 국제사회와 함께 MDGs 달성 등 세계적 이슈 해결 적극동참
- 우리나라 위상제고 및 개도국과의 우호협력 증진

### 나. 중점추진방향

#### ■ 개도국 Needs에 부합하고, 우리 개발경험 공유 가능 사업 지원

- 인적자원개발(HRD) 및 정부역량강화 (Capacity Building) 중점지원
- 선진국·개도국간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ICT 분야 지원강화
- 해외봉사단파견, NGO 지원, 홍보 등 국민참여형 협력사업의 확대

#### ■ MDGs 등 국제사회 공동목표 지원강화

- 빈곤완화, 기초보건, 초등교육 등 BHN 분야 지원강화
- 여성, 환경 등 범지구적 과제에 대한 지원강화
- 최빈개도국 지원강화를 통한 세계빈곤해소 노력 동참

#### ■ 국제적 재난복구 및 재건지원 강화

- 이라크·아프간 정부의 조기안정 중점지원
- 남아시아지진해일 등 복구사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 긴급구호봉사단 파견

### 다. 국별·지역별 추진방향

#### ■ 국별·지역별 최적배분 모색

- 국별특성, 양국관계, 협력효과 등을 감안, 중점지원국가를 선정하고, 그 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규모에서 적절배분
- ASEAN, APEC, SICA 등 지역 협의체 회원국과의 협력강화

#### ■ 아시아지역 중점협력기조 유지

- 우리나라와의 외교적·지리적·문화적 관계 고려

- 특히 아세안 및 아세안 후발개도국인 CLMV

※ 지원 강화

※ CLMA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 기타지역은 그 특성에 맞도록 지원

- 아프리카 지역은 사하라 이남을 중심으로 BHN 충족 및 MDGs 달성 위주의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 중남미 과테말라, 페루, 파라과이 등 중점협력대상국은 보건, 교육 위주의 시설 및 인력

양성을 중점지원하고 기타 국가들은 HRD 위주지원

- 중앙아시아 지역은 시장경제 전환노력 중점 지원

#### ■ 최빈국 지원비율 확대

- 빈곤감소 등 MDGs 달성을 목표로 인도적 지원 확대

- 절대빈곤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 적극 동참

※ 우리나라의 GNI 대비 최빈국 지원비율은 0.01%로 DAC 회원국의 1/8 수준

### 3. 사업추진실적

#### 가. 총괄

구 분		실 적	집행액 (백만원)
연 수 생 초 청		132과정 2,005명	11,360
전문인력파견		42국 1기 79명	4,026
해외봉사단파견		29국 1,674명 (신규 723명)	33,597
물 자 지 원		79국 8기 9	9,928
프 로 켜 트		28국 2기 9 46개 사업	21,679
개 발 조 사		11국 13개 사업	5,109
N G O 지 원		14국 24개 사업	1,231
특별협력사업	아 프 간 지 원	프로젝트사후관리 1건, 연수 77명, 전문가 2명	563
	이 라 크 지 원	프로젝트 4건, 개발조사 1건, 연수 488명, 전문가 10명	57,322
	남아시아지원	프로젝트 4건, 국제기구지원 9건	26,027
	파키스탄지원	프로젝트 1건, 국제기구지원 6건, 구호단 파견 39명	3,656
협력사업지원		ODA연구조사, 홍보, 정보화 등	7,147
		계	181,646

※예산집행실적은 2005년도 결산서 기준

## 나. 사업별 세부실적

(단위: 건)

### 1) 연수생초청

(단위: 명)

구 분	계 획(A)	실 적(B)	실적율 (A/B)	비 고
과정/인원	133과정 2,180명	132과정 2,005명	92.0.%	인원기준

- 117개국 2,005명을 초청, 2004년도 1,923명 대비 4.3% 증가
- 한국형원전기술, 과학기술정책, 아세안 개도국 채권시장 육성, 국제통상 및 WTO 과정 등 총 132과정 실시

### 2) 해외봉사단파견

(단위: 명)

구 분	계 획(A)	실 적(B)	실적율 (A/B)	비 고
계	32국 1,661명 (신규 720)	29국 1,674명 (신규 28국 723)	100.8%	활동인원1,234명, 귀국 인원 440명 (연말기준)
일반단원	31국 1,363	29국 1,373	102.7%	(NGO, 행정원 포함)
협력요원	23국 264	24국 265	100.4%	
협력의사	10국 34	9국 36	100.9%	

- 28국 723명의 신규 단원을 파견, 목표대비 101% 파견
-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등 긴급재난구호 봉사단 199명 활동
- ICT, 농업수산, 보건의료 분야 등 파견
  - ※이집트(컴퓨터), 인도네시아(미국생산), 파라과이(수산양식), 탄자니아(간호) 등

### 3) 프로젝트 · 개발조사

#### ■ 프로젝트

구 분	계 획(A)	실 적(B)	실적율 (A/B)	비 고
건 수	28국 2기구 46건	28국 2기구 46건	100%	

- 인적자원개발(29.9%), ICT(11.7%) 등 우리나라 비교우위 분야 중점지원
  - ※과테말라 섬유기술훈련센터 건립, 미얀마 IT개발 마스터플랜 등
- 보건의료(29.4%), 환경(11.2%) 등 범세계적 관심분야 지원
  - ※베트남 산업오염방지, 캄보디아 국립소아병원 현대화 등

### ■ 개발조사

(단위: 건)

구 분	계 획(A)	실 적(B)	실적율 (A/B)	비 고
건 수	13건 11국	13건 11국	100%	

- 산업에너지 분야 집중지원 (44.3%)
  - ※베트남 나짱-호치민간 철도복선화 실시설계, 인도네시아 카리안 다목적댐 건설 타당성조사, 미얀마 송전망 건설 타당성조사 등
- 보건의료, ICT 분야 등 지원
  - ※페루 식수개발 및 상수도설치, 몽골 정보통신기술분야 개발 마스터플랜 등

### 4) 전문인력파견

(단위: 건)

구 분	계 획(A)	실 적(B)	실적율 (A/B)	비 고
전문가	인원/국 40명 / 21국 17기구	40명 / 21국 17기구	100%	계속: 1명 신규: 39명
의 사	인원/국 18명 / 18국	19명 / 18국	105.6%	계속: 18명
태권도 사 법	인원/국 20명 / 20국	20명 / 20국	100%	계속: 20명

- 인도네시아 증권인프라 구축, 캄보디아 직업 훈련, 에콰도르 중소기업육성, 우크라이나 에너지관리 분야 전문가 등
- 몽골 한의사, 피지 산부인과, 우간다 내과의사 등
- 네팔, 파라과이, 우즈베키스탄, 수단, 남아공 등 태권도협회 파견

## 5) NGO 지원

(단위: 건)

구 분	계 획(A)	실 적(B)	실적율 (A/B)	비 고
건 수	14국 24건	14국 24건 12,3억원	100%	

- 전년대비 17.7%의 예산증가로 총 14국 24건 지원  
※필리핀 결핵퇴치, 몽골 축산시범마을 개발, 방글라데시 공중보건사업 등
- 개도국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grass-roots 지원

## 6) 전후재건복구지원

### ① 이라크재건지원

(단위: 건, 명, 백만원)

사업명	계 획(A)	실 적(B)	실적율 (A/B)	비 고
계	57,500	57,322	99.7%	
물자지원	27,227	27,209	99.9%	
개발조사	1건	1건	100%	
프로젝트	4건	4건	100%	
연수생초청	47과정 460명	48과정 488명	106%	
전문가파견	2분야 10명	2분야 10명	100%	

- 이라크 정부능력강화를 위한 물자지원 집중지원

- 현지 치안불안, 수원태세 및 행정체계 불안정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빌 지역을 중심으로 전년 2건 대비 4건의 신규 프로젝트 추진  
※아르빌 교통관리시스템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 사업 등
- 연수생초청 및 물자지원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 완료

### ② 아프간재건지원

- 전후재건 지원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연수생초청 및 전문가파견 등 사후관리 집중지원 (50만불)
- 기지원 프로젝트의 사후관리를 현지 활동 중인 아국 NGO를 통해 수행함으로써 사업간 연계 및 사업효과 지속성 제고 도모

## 7) 긴급재난복구지원

### ① 남아시아지원

- 스리랑카 마하나마 교량개보수, 인니 아체 친선병원건립 등 2개국 4개 프로젝트 지원  
※스리랑카 마하나마 교량개보수('05-'07/7,000천불): 기간시설 복구지원을 통한 경제회생 및 생계기반 강화  
※인니 아체지역 친선병원 건립('05-'07/3,700천불): 지진해일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한 주민 건강증진 등
- 재난발생 직후, 피해현장에 긴급구조대 급파, 봉사단 파견, 구호물품 전달 등 신속한

#### 긴급구호 실시

##### ② 파키스탄지원

- 텐트, 모포 등 대피시설 및 응급의약품 지원, 구호인력(39명) 파견
- WFP, UNICEF, 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현금지원(457천불)
- 지진발생 직후, 1일만에 구조팀 및 의료팀을 구성하여 선발대 우선 파견
- 활동지역 확정 및 피해지역 수요파악 후 본대를 파견하는 등 긴급재난에 대해 신속·체계적으로 지원

##### ③ 기타

- 태풍, 가뭄, 홍수, 기근 등 재난피해에 대한 긴급지원  
※과테말라 허리케인(305천불), 수단 가뭄(100천불), 루마니아 홍수(80천불), 부룬디 기근(50천불) 등

#### 4. 사업결과분석

##### 가. 중동 및 아시아 중점지원

- 2005년도 KOICA 무상원조는 2.1억불로 전년도 1.8억불 대비 19.4%/0.3억불 증가 (이하 잠정실적)
- 지역별 지원비중은 중동 39.3%, 아시아 32.5%, 중남미 5.7%, 아프리카 5.3%, 동구·CIS 4.4% 순으로 지원
- 중동지역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이라크 특별 지원에 기인  
※이라크 제외시 아시아 50.1%, 중남미 8.6%, 아프리카 8.0%, 동구 6.7%, 중동 6.4% 순
- 아시아 지원총액 중 CLMV 4개국에 대한 지원비중은 30.1% 차지
- 중남미 지원비중은 전년대비 소폭(0.8%) 증가했으나, 아프리카 지원비중은 소폭(0.8%) 감소

〈 표1. 2005년도 지역별 지원내역 〉

(단위 : 백만원)

지역	계	아시아	중남미	동구	중동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기타	국제기구
지원액	215,120	69,985	12,296	9,552	84,569	11,409	811	18,190	8,310
비중	100.0	32.5	5.7	4.4	39.3	5.3	0.4	8.5	3.9

〈 표2. 2005년도 분야별 지원내역 〉

(단위 : 백만원)

분야	계	교육 훈련	보건 의료	공공 행정	ICT	산업 인프라	무역 금융	농림 수산	기 타			
									그외	행정성 경비	긴급구호 /재건지원	NGO 지원
지원액	215,120	36,913	44,609	28,551	17,228	19,424	937	8,541	8,549	15,766	32,590	2,011
비중	100.0	17.2	20.7	13.3	8.0	9.0	0.4	4.0	4.0	7.3	15.1	0.9

## 나. 보건 및 교육분야 집중지원

- 2005년도 분야별 지원 비중은 보건의료 20.7%, 교육 17.2%, 행정제도 13.3%, 산업에너지 9%, ICT 8%, 농업 4% 순
  - MDGs 달성을 위한 BHN 분야 및 HRD에 대한 중점지원
    - 개도국의 빈곤·소외계층에 대한 의료혜택 및 기초교육 기회 확대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MDGs 달성 노력에 동참
- ※보건의료 및 교육분야 지원비중은 전년대비 각각 9.1%, 5.5% 증가

## 다. 이라크·아프간 등 성실한 재건복구 이행

- 열악한 사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차질없이 사업수행
  -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브랜드가치 제고
  - 파병지역인 아르빌을 중심으로 전후재건복구사업 실시
  - 우리군의 안정적인 활동 및 아국 인식제고에 기여
  - 치안사정으로 인해 지연됐던 바그다드지역은 “원격관리에 의한 사업추진” 기반 마련
- 중동지역 특별지원
  - 이라크 파병에 대한 중동지역 우호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지원
  - 중동지역 17개국에 대하여 '04~'05년간 3,600만불 지원
- 아프간 재건사업 사후관리 강화
  - 2005년도 신규예산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대아프간 특별협력사업”

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 라. 신속한 재난구호활동 전개

- 남아시아 및 파키스탄 재난 발생시, KOICA 구호대 급파
  - 현지 활동 봉사단원 및 귀국 봉사단원, 119 구조대 등
- 재건사업 후속지원
  - 남아시아 재난복구 특별사업으로 분류하여 피해지역 재건지원

## 마. 국민참여형 사업 확대

- 일반국민 참여확대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원조” 실천
    - 최근 5년간 해외봉사단은 6.4배, NGO지원은 3.6배 증가
  - 특히, 해외봉사단 파견규모는 '91-'04년간 연간활동인원이 평균 200명이었으나 '05년도에는 1,600여명으로 대폭확대
    - 2005년도 한국의 해외봉사단 파견규모는 미국, 일본, 이탈리아, 노르웨이, 영국에 이어 세계 6위
- ※미국(Peace Corps) 7,800여명, 일본(JOCV) 3,600여명, 이탈리아 3,400여명, 노르웨이 1,600여명, 영국(VSO) 1,400여명 ('05년 연간활동인원 기준)

## 바. 고객만족도 제고

- 정부출연기관 중 최상위 평가



- 연수생 및 수원국 원조총괄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 수원국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사업발굴 및 시행 노력

※설문조사결과 고객만족도 평균 86.9점

- 등 원조체제 개선 필요
- 중점협력국 대상 Country Program 수립 및 프로그램형 사업수행체제 개편 필요

## 2. 문제점

### 가. 정책사항

#### ■ 대외원조규모 미흡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ODA 규모로 확대 필요 (2005년도 OECD/DAC 회원국 ODA/GNI 평균 0.33% - 우리나라 0.09%)
- 2005년도 우리나라 ODA 규모는 총액 기준 전년대비 75%가 증가되었으나, 이는 IDB 가입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기인 ('04년 0.06%)

#### ■ 무상원조 비중 저조

- OECD/DAC 회원국 평균 무상비율은 90%를 상회
- 일부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공여국들은 100% 무상원조 실시
- 국제사회 동향을 고려, 우리나라의 무상비중 상향조정 필요
- ※우리나라 중기재정운영계획에 상정된 2009년도 무상비율은 45% 수준

#### ■ 투입위주의 원조사업 수행

- 사업수단별 투입위주의 사업으로 성과위주의 사업수행에 한계
- 중장기전략 부재로 전략적인 원조목표 수립

## Ⅲ. 평가 및 문제점

### 1. 종합평가

- 2005년도 KOICA 대외무상원조사업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및 국제적 재난에 대한 재건복구 지원 노력 등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지원대상 국가 수의 과다 및 국별 중점지원 분야 미선정 등으로 인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성과중심의 사업수행에는 한계가 있었음.
- 사업수단별 투입위주의 지원방식으로 인해 성과중심적 사업체계가 미비함으로 국가개발계획의 조화 등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원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따라, 2005년 12월 '2006-2009 대외무상원조사업 추진전략' 수립을 통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한 협력대상국 선정기준 및 국별·분야별 집행전략을 마련함으로써 무상협력사업의 전환점을 맞음.
  - ODA 규모 증가로 인해 Sector별 Approach

과 수원국 맞춤형 사업수행 미흡

-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체제 미흡

#### ■ 국별원조정책 미비

- 사업중심 원조로 수원국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원조계획 수립불가

- 지원분야 분산으로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 및 지원성과 미흡

- 국별 발전단계에 부합하는 종합적 지원을 위한 사업수단간 연계미흡

#### ■ 소액 다국가 지원으로 인한 원조 효과성 저하

- 2005년도 지원 국가 수는 138개국으로 한 정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한계

- 2005년도 지원 상위 10개국 비중은 전체사업비의 70% 차지, 이를 제외한 30%의 재원을 128개국에 분산 지원

〈 표3. 2005년도 상위 10대 수원국 〉

(단위 : 백만원, %)

순위	국명	지원액	점유율
1	이 라 크	75,624	40.1
2	스 리 랑 카	12,576	6.7
3	인도네시아	9,531	5.1
4	베 트 남	9,515	5.0
5	캄 보 디 아	5,954	3.2
6	필 리 핀	5,182	2.8
7	이 집 트	4,162	2.2
8	미 얀 마	3,490	1.9
9	아프가니스탄	3,393	1.8
10	우크라이나	3,235	1.7
계		132,664	70.3

\* 비율은 행정비용과 다자간지원 총액을 제외한 양자간지원 총액 대비 비율

#### ■ 본부위주의 업무체제로 현지실정 반영 미흡

- 일괄적인 수요조사 실시에 따라 수원국의

개발수요 반영 미흡

- 사업수행 현장에 있는 재외공관 및 해외사무소 역할강화 필요

- 수원국의 Ownership제고 및 현지실정에 맞는 사업발굴 미흡

- 공급자의 일방적인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수원국과 협의체제 강화 필요

#### ■ 무상원조사업 수행주체 분산으로 사업효율성 저하

- 정부의 무상협력사업 정책적 일관성 및 사업추진 효율성 저하 우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전체 무상원조중 타부처 비중은 약 17%를 차지

- 사업수행주체의 분산은 수원국에서 우리나라 원조정책 혼란 야기

- KOICA는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을 위해 설립

## 나. 사업부문

### 1) 연수생초청

#### ■ 개발경험 소개 위주의 연수로 편중

- 개발경험 소개만으로는 개도국 근본문제 해결에 한계

- 개도국 수요가 많은 Governance 부분은 대부분 정책소개에 국한

- 정책소개위주에서 정책개발위주의 맞춤형 연수로 개선 필요

※ 정책·기술소개형 연수 65%, 기술습득형 연수 26%, 시찰형 연수 6% 차지, 정책개발형 연수는 부족

■ 공급자 위주의 단순 연수형태 지양 필요

- 연수형태가 초청연수로 일원화되어 있어 개도국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데 한계
- 타 공여국과 같이 연수형태의 다양화 필요
  - ※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 태국 등은 지역성을 고려한 현지 연수 요청
  - ※ 아프리카 최빈국의 경우 연수효과 제고를 위해, 현지연수, 제3국연수 필요

■ 사업계획수립절차 복잡

- 개도국 수요조사, 국내부처 수요조사, 연수기관 모집제안서 공모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사업계획수립에 애로
- 연수기관과의 단년계약으로 업무예측성이 낮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관계도 미흡
- 매년 국별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이 결정되므로, 중장기전략 부재

■ 연수기획 · 평가 능력 미흡

- 수원국 실정에 적합한 연수과정 개발 부족
  -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행정, 회계, 행사, 산업시설 업무에 집중
- KOICA 인력사정상 매년 증가되는 연수인원에 대한 지원에 한계
- 맞춤형 국별과정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내용충실도는 다소 미흡

■ 일반인 참여 프로그램 부족

- 연수사업은 국내사업으로 민간 참여기회는 많은 편이나,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제한적
  - ※Home Visiting은 연수기관 위주로 운영되어 민박 프로그램 활성화 미흡

■ 연수기관의 주인의식 및 참여의지 결여

- 단순한 연수위탁 관계에서는 주인의식, 참여의지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한계
- 최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제개발협력사업 관심증대
- 유사 프로그램을 타 관련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사례증가
  - ※교육부, 정통부, 보건복지부, 과기부, 환경부, 여성부 등

2) 해외봉사단파견

■ 적격자원 확보 애로

- 농림수산, 이공계 등 전문분야는 적격자원이 부족하고, 중도포기자도 다수발생
- 2005년 지원자는 4,134명으로 모집공고 인원 946명 대비 4.4배가 지원하였으나, 지원자중 실제 응시자수는 지원자의 24.3%에 불과
- 최종 합격인원은 492명이었으나, 합격자의 21.5%가 중도포기
- 개도국 수요가 가장 많은 농업분야는 모집인원의 29% 수준인 47명지원

〈 표4. 2005년도 해외봉사단 모집.선발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모집공고 (A)	지원인원 (B)	서류합격 (C)	응시인원 (D)	합격인원 (E)	출국인원 (F)
인원(명)	946	4,134	2,128	1,005	492	386
비율(%)	-	436.9	51.5	24.3	11.9	9.3
	-	B/A	C/B	D/B	E/B	F/B

※국제협력요원, 국제협력의사, NGO, 산 · 학협력대학 파견 등 제외

〈 표5. 2005년도 해외봉사단 분야별 모집·응시자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교육훈련			농림수산			산업인프라			의료보건			정보통신		
	모집		응시	모집		응시	모집		응시	모집		응시	모집		응시	모집		응시
	직종	인원	인원	직종	인원	인원	직종	인원	인원	직종	인원	인원	직종	인원	인원	직종	인원	인원
계	110	946	1,005	29	246	351	29	162	47	30	161	126	15	157	218	7	220	263
초과	25	493	822	9	100	281				4	33	66	7	143	213	5	217	262
동수	14	64	64	5	51	51	5	5	5	3	5	5	1	3	3			
미달	32	311	119	6	77	19	12	131	42	11	96	55	2	5	2	1	2	1
없음	39	78	0	9	18	0	12	26	0	12	27	0	5	6	0	1	1	0

■ 양적확대에 따른 업무시스템화 미흡

- 파견형태의 다양화, 민간부문과의 연계 등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미흡
- 파견규모 확대에 따른 업무의 전문화·체계화 미흡

■ 안전사고 및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 증대

- 연간 활동인원인 1,000명을 넘어섬에 따라 파견단원에 대한 안전 및 의료사고 발생 증가  
※파견인원이 급증한 2004년 이후 사고 및 후송 건수는 200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사전예방 및 사고신속대응체제 정비 등 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필요

3) 프로젝트·개발조사

■ 국내 개도국 개발 컨설팅 기관 부족

- 국제적 수준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나 기관이 부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부재
- 국내에는 선진공여국과 달리, 개도국 개발 컨설팅에 경험이 있는 전문그룹이 절대 부

족하여 사업수행기관 확보에 애로

■ 효과적인 사후관리 제도화 미흡

- 건축, 기자재가 투입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사후관리 요소 빈발
- 지원 초기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를 염두에 둔 중장기적 개발사업 지원전략 및 사후관리의 제도개선 필요

■ 개도국 개발과제의 종합적인 지원체제 미흡

- 「분야별 종합지원방식 (Sector-Wide Approaches)」의 도입 필요
- 개도국의 개발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자원과 기술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

■ 사업추진절차 개선필요

- 신규사업 선정후 사업개시 당해연도에 사전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사업추진 지연 및 사업선정의 충실도 저해 우려
- 협의의사록 체결후 구상서 교환 지연으로 인해 사업추진 지연

#### 4) 전문인력파견

##### ■ 전문가 참여인력 부족

-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관기관의 현직자에 의존
- 제한된 가용인원으로 파견전문가의 역량 부족 현상 발생
- 전문가 Pool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등록 자원의 활용실적 저조
  - ※ 2005년도의 경우 40명 파견 중 3명이 Pool 등록자원

##### ■ 전문가 활동성과 활용 미진

- 활동성과 및 결과물이 내부자료로 활용되는 데 그치는 등 활동성과의 대외활용도 미진

#### 5) NGO 지원

##### ■ 지원규모 영세

- 특별협력사업 제외시 NGO 예산은 매년 소폭 증액
  - ※ 최근 5년간 연 평균 9.8% 증
- 1개사업 지원규모는 평균 5천만원 내외로, 성과달성에 미흡
  - ※ 지원총액 대비 지원사업수를 고려, 불가피하게 1개사업당 지원상한액 설정

##### ■ 단년도 지원으로 사업의 연속성 부족

- 통상 NGO들은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KOICA는 1년 단위로 사업을 선정·지원하고 있어 사업연속성 결여

##### ■ NGO 등록제도 활용성과 미흡

- 기존 등록제도는 우수단체 검증 실효성이 낮은 반면, 이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력 소요

#### 과다 등 문제점 발생

- 미등록 NGO단체들의 불만제기 가능성 내재

#### 6) 전후재건복구지원 (이라크·아프간)

##### ■ 종합적 사후관리 계획의 부재

- 사업종료후 수원국 능력부족 등으로 효과의 지속성 확보 애로 예상
- 기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기반 마련 필요

##### ■ 치안사정 악화

- 파견인력 및 지원물자 테러대상 가능

※ 이라크내 치안부재를 악용한 바그다드대학 및 18개 국립대 IT인프라 구축사업의 기자재 탈취사건 발생('05.9)

- 치안사정이 개선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애로 발생

#### 7) 긴급재난복구지원

##### ■ 해외재난 긴급구호시스템 구축 미흡

-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정체결 등 제도마련에도 불구하고, 타 공여국에 비해 긴급재난 예산 및 인력부족 등 해결과제 산재

##### ■ 신속한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부족

- 해외긴급재난구호에 관한 법률 미제정
- 신속한 지원을 위한 사전 구호물자 확보 및 관계기관간 합동훈련 등 제도적 장치 미흡

#### 8) 다자협력

다자지원의 효과성 및 KOICA 역할정립 미흡

- 2005년도 다자지원액은 KOICA 사업비의 4%를 차지, '91-'05년간 평균 지원비중 3.11%보다 높은 수준이나 이는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지원액의 급증에 기인
- 현행 KOICA의 다자지원은 대부분 외교부의 정책결정 사항에 대한 단순 집행, 단순 Funding 으로 인식

#### ■ 국제동향 파악 미흡

- 선진공여국에 비해 다자지원에 대한 중장기 framework나 전략 부재
- MDGs 및 빈곤감소 등 국제적 이슈와 연계 미흡

#### ■ 평가 및 사후관리 부재

- 대부분 국제기구에 대한 현금 및 물자공여 지원으로 사업이 종결되어, 지원 성과측정에 한계

### 9) 홍 보

#### ■ ODA의 국민적 인지도 미흡

- 대외원조 중요성과 국제적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 ※ 우리정부의 대외원조 제공사실에 대한 인지도 37% ('05.8월, 국무조정실 여론조사)

#### ■ 대국민 홍보수단 다양성 부족

- 계층별, 대상별 홍보수단의 차별화 및 다양화 미흡
- 주로 언론매체를 통한 뉴스성 홍보로 KOICA 기관인식 부족

#### ■ ODA 홍보 네트워크 구축 미흡

- ODA 관련 부처 및 기관간 연계강화
- 타 공여국과 같이 현장-본국간의 홍보 네트워크 구축 필요

## IV. 개선조치사항

### 1. 기초치사항중 정책부분

#### 가. 대외무상원조사업 추진전략 수립 ('05.12)

##### 1) 수립배경

- 국내외 ODA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 세계적인 ODA 정책방향 변화추세, 우리정부의 ODA 확대방침, 국내민간부분의 ODA 관심증대 등
  - 정부의 '05.11월 ODA 개선종합대책 관련, 무상원조 실천전략 수립

##### 2) 전략목표 및 기본방향 수립

- 중기무상원조정책 및 국가별원조정책 수립
-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협력대상국 선정
- 한국형 원조모델발전
- 국민참여형 원조추진
- 현장중심의 사업수행체제 구축
- 사업수행 역량강화
-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 해외긴급재난구호 체제 구축

### 3) 소액다국가 지원방식 개선

-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실현
  - 2006년도 협력대상국을 ‘127개국에서 58국’으로 대폭 축소

### 4) 사업집행전략 수립

- 지역별·국별, 분야별·사업별 상세 사업수행 전략 수립

## 나. 무상원조사업 수행체계 개선

### 1) 중점 및 일반협력국에 전략적 집중지원

- 개발원조 성과제고와 자원배분 효율성을 고려, 선별 지원
  - 중점협력국과 일반협력국으로 구분
    - ※ 협력대상국 선정 고려요인
      - : ① 수원국 빈곤상황, ② 수원국 통치상황(Governance), ③ 우리나라와의 외교적관계, ④ 경제개발잠재력, ⑤ 우리나라의 경험관계 등

### 2) 국별원조정책 (Country Program/ CP) 수립

- 전략적이고 연속성이 있는 개발원조 실현을 위해 국별계획 수립
  - 수원국 빈곤감소전략 (PRSP), 천년개발목표 (MDGs)와 원조방향을 일치시켜 수원국 경제개발계획상의 고리와 연계성 강화
- 사업중심에서 국가중심으로 전환
  - 국별전략 뿐만 아니라 지역전략 (Regional Strategy)도 수립

### 3) 지원분야 집중

-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분야 선정
  -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 및 우리의 비교우위를 고려
  - KOICA 중점지원 분야 결정 ('06. 5)
    - ① 교육(Education), ② 보건의료(Health), ③ 행정제도(Governance), ④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⑤ 정보통신(ICT), ⑥ 산업에너지(Industry & Energy), ⑦ 환경 및 기타(Environmental & others), ⑧ 재난구호(Disaster Relief & Reconstruction)

### 4) 정책대화 강화

- 국별 원조정책과 수원국의 개발계획과의 조화를 통해 원조효과성 제고
  - 공관과 수원국간의 협의채널을 강화하고 정책대화를 활성화
  - 수원국과의 원조조율 및 정책일관성 유지
  - 정확한 개발수요 및 실천방안 협의

## 다. 사업수행방식의 대 전환

### 1) 프로그램 체제로 전환 (우리나라 ODA의 新모델)

- 국제원조 패턴을 고려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선진원조 기법 개발
  - 지원규모가 적고, Sector별 Approach 기반이 미조성되었던 과거와 달리, 무상원조규모가 증가하므로 미래지향적 체제로 체질개선 필요

- 한 차원 높은 개발원조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수행체제로 개편

※ 성과위주로 지원하되, 그 목표를 보다 소프트 웨어화

■ 「단위사업별로 사업이 종료되는 현 원조시스템」을 「국별개발과제를 종합지원하는 프로그램식으로 전환」하여 하기 현안문제 해소

- 개도국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적 원조계획수립이 어렵고,
- 지속발전 가능한 원조방향 설정에도 한계
- 사업별 목표가 뚜렷치 않아 정확한 평가에 애로, 평가결과 Feedback도 미미
- 한국형 원조모델을 효과적으로 적용·발전 시키는데 한계

■ 목표중심적, 종합개발형 원조체제 구축

- 국별원조정책과 정책대화를 강화하여 원조의 질적제고 달성
- ※ 각 국별지원전략 범위 내에서 개발목표 설정 후, 목표에 합당한 중점지원분야를 선별해서, 세부적인 이슈를 정하고, 동 개발이슈에 필요한 각종 사업수단을 투입하여 당초 계획한 목표 달성

■ 개발원조와 개도국 국가개발계획과의 일관성 유지

- 개도국 빈곤감소전략, 천년개발목표 등 국가개발계획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개발목표를 설정하여 개도국과 함께 이를 달성하는 체제로 전환

※ 예) 과거에는 병원건립이 사업목표였으나, 앞으로는 유아사망율감소, AIDS 예방등이 사업

목표가 되고 병원건립은 수단의 일부가 됨.

2) KOICA 조직의 선진화

- “프로그램 방식 원조체제” 및 “우리 경제개발경험전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가능하도록 조직정비

- 국가와 분야집중을 강조한 전략적인 사업수행체제 구축

■ 지역정책기능 강화

- 현 지역정책팀을 지역정책부로 확대 개편 (3개팀 신설)
- ※ 중장기 원조정책 수립, 협력대상국 선정 및 지원분야 선정, 국별 원조전략(CP) 수립,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등 기능 수행

- 수원국 정부와의 정책대화 및 원조정책수립

■ 중점지원분야에 입각한 사업수행 편제

- 국제협력단의 중점지원 8개 분야 반영
- ※ 교육훈련팀, 행정제도팀, 보건의료팀, 글로벌이슈팀, 정보통신팀, 산업에너지팀, 농촌개발팀, 재난복구팀

■ 「전략수립, 사업수행, 평가」의 유기적인 삼각균형 유지

- 지역부서, 사업부서, 평가부서간의 효과적인 조율을 위해 임원의 관장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
- 평가업무의 강화차원에서 사업평가팀을 ‘사업평가실’로 격상

■ 행정 및 지원부서 슬림화

- 원조기획 및 사업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총무부·기획부를 ‘기획관리부’로 통합



## 라. 해외재난구호 시스템 구축

### 1) 선진형 재난구호체계로 전환

- 현금지원에서 구호활동으로 지원체계 개선
  - 과거 현금지원 위주의 재난구호에서 긴급구호대파견, 긴급물자 수송 등 직접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선진원조형태로 전환
  - 좀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구호활동을 위해 법적, 예산적 장치 마련중
    -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 상임위 상정·심의중
    - ※ '07년부터 해외재난 긴급구호예산을 현 300만불 규모에서 1,000만불규모로 증액 검토중

### 2) KOICA 긴급구호대 결성

- 항시 파견체계 구축 등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재난초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과 범국가적 협력체제 구축
  - 파견절차 및 행동요령 등 필요한 매뉴얼 작성
  - 구호대 모의훈련 등 실시

#### 〈 긴급구호대 구성 〉

- ※ 긴급구조반 : 소방방재청, 119 구급대, 한국구조연합회
- ※ 의료지원반 : 서울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 긴급구호 봉사단 : 민간단체
  - ☞ '06. 5월 인니 족자카르타 지진발생후 22시간만에 KOICA 구호대 및 의약품을 현장에 파견 (해외 구호대로서는 최단시간내 지원한 국가 중 하나)

### 3) 긴급구호후 재건복구사업 후속지원

- 필요시 피해지역에 대한 재건지원을 중장기적

으로 지원

- 사회기능 정상화를 위한 인프라재건 및 역량강화 중점지원
- 지원효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 2. 기초치사항중 사업부분

### 가. 연수생초청

- 연수과정의 차별화 및 전문화
  - 연수과정을 연수목적 및 내용에 따라 4개 과정으로 大분류
    - ① 기본과정(개발정책, 기능·기술) ② 특별과정(외교적 수요) ③ 국별과정(3년 중기) ④공동연수
- 연수기간 적정운영 및 장기연수과정 개선
  - 과정의 목적에 따라 기간을 점차 확대·운영
    - ※ 기본과정은 2주미만 단기연수 폐지
  - '05.11월, 장기연수 기본방향을 정립
    - ※ 2006년도에는 중점협력국 중심으로 3-4개 장기과정을 특화, 연수기관은 공모
- 절차간소화 및 전산화 (Out-sourcing 확대)
  - 과정운영은 연수기관, 연수지원은 위탁업체에 대폭이관
    - ※ 사업담당자의 사업기획·평가 능력배양
      - ☞ Project Design Matrix, 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 등 사업기획 및 관리 교육 실시
- 새로운 연수형태 개발 (현지연수)
  - 현지연수 타당성검토를 위한 연수기관 및

수원기관 자문

- 해외사무소를 통해 현지연수 가능 확인, 구  
체일정 등 준비
- ※ 2006년도 새마을운동, IT교육 등 3개 과정  
시범실시

■ 연수과정 종료평가 개선

- 객관적이고 성과중심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종료평가 양식 개선
- 통합평가 체제로 전환키 위해 연수생 설문  
지 평가방법의 전면 재검토중

■ 연수과정 심의 강화

- 상반기 종료 37개 과정의 타당성, 향후 과정  
지속 여부 등 검토
- 존속과정, 프로그램화 필요과정, 대체 또는  
폐지과정 등 심의

## 나. 해외봉사단 파견

■ 시니어봉사단 제도 도입

- 중장년층 퇴직인력 및 은퇴인력의 경험과  
기술 적극활용
- 연령제한 철폐
- ※ 40세 이상 관련분야 기술, 지식 및 5년이상  
경험, 전문가급

■ 단원 안전관리 강화

- 안전 및 의료관리 체계강화를 통해 사고예  
방에 중점
- ※ 해외안전관리(KOV Security Manual) 교육 등
- KOICA 해외봉사단 종합상황실 및 비상연  
락체계 운영

- 긴급후송시스템(SOS Medical Service) 운  
영 등

■ 봉사단원 진로 및 취업지원

- UNV 파견을 통해 귀국단원 진로개척 및 전  
문가로의 인재양성 도모 (KOICA-UNV 기  
관간 협정 체결)
- 인터넷 취업전문업체와 계약, 별도의 취업  
정보 KOICA 웹사이트 구축
- 경력관리시스템(Career Path System)  
도입

■ 해외봉사단 자격인증제 개선

- 선발 단원중 국내훈련 이수자에게만 '봉사  
단 자격인증' 부여
- 봉사단 자격인증 요건강화로 우수자원 파견  
도모

■ 기술훈련 인턴십 제도 도입

- 팀제봉사단 파견전 농축산, 임업 등 관련분  
야 직무교육후 파견
- 국내관련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봉사단 실무  
능력 배양

■ 해외봉사단 파견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 파견인력의 모집, 교육, 파견, 사후관리까지  
One-stop 시스템 구축

## 다. 프로젝트 · 개발조사

■ 관련규정 제 · 개정

-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사업의 일원화, 용역  
계약 세부내용 보완
- 현지조사 경비지급기준 명확화

- 사업선정위 운영기준 신설 등 효율적 사업 수행기반 마련

#### ■ 분야별 사업추진 체제 구축

- 직제개편을 통하여 사업수행분야를 5개로 대분류

※ 공공행정·제도, 교육훈련, 산업환경, 정보통신, 의료보건

- 특정 개발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협력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

※ 개발조사, 프로젝트, 전문가파견을 분야별로 통합

- 선진국 사례조사와 우리사업 특성을 고려, 분야별 사업 추진방향 연구 실시

※ 「개발사업 분야별 추진방향」 발간(05.5)

☞ 행정제도, 농림수산, 에너지, 환경, 정보통신, 교육훈련, 의료보건 등 7개분야

#### ■ 종료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 프로젝트 및 개발조사 종료사업의 각종 사업수행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정리

- 정보접근 용이성 및 업무활용도 제고를 위해 DB 구축

※ '06년 2월부터 용역 착수

#### ■ 유관기관과 업무개선 협의체제 구축

- 사업발굴, 계약, 용역수행 등 업무관련 유관 업체와 대화 실시

- 유관기관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규정개정, 업무 절차개선 등 검토

### 라. 전문인력파견

#### ■ 전문가 경비지급기준 개선

- 전문가 경비지급기준 현실화를 통해 우수 적격전문가 선발 도모

- 전문가 국내수당 신설, 전문가 현지활동 지원강화 등

#### ■ 전문가 활동결과 활용 강화방안 마련

- 성과사례 발굴, 파견국의 활동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

- 홈페이지 게시, 단내외 해당분야 정기간행물 게재 등 우수자료 공유체계 강화

#### ■ 파견전 사전조사 강화

- 수원국과 전문가 파견 활동계획서 및 체크리스트 사전협의 실시

- 6개월 이상 장기파견은 전문가 파견전 활동기관 및 직무 현지조사

### 마. NGO 지원

#### ■ 한국 NGO 해외봉사단 신설

- 해외원조단체협의회와 위탁용역계약 형태로 지원

-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시도 (13억 지원, 77명 파견)

#### ■ NGO 등록제도 개선

- 국민참여형 사업확대 차원에서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NGO Pool” 운영

- 역량있는 NGO와 우수사업에 지원이 집중 되도록 심사기준 등 개선

#### ■ NGO 업무역량강화

- 해외원조단체협의회 개발 NGO 대상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워크샵, 현장방문 등 NGO 역량강화를 위한 다각적 사업추진
  - ※ KOICA, 국제기구 및 타국 NGO 사업현장 방문교육 실시(9개단체 참가)

- 위주로 진행
- 2005년부터 장기적인 재건효과를 위한 프로젝트사업 본격 착수
- 어려운 현지여건에도 불구하고, 차질없이 사업 수행 중

## 바. 전후재건지원 (이라크 · 아프간)

- 치안불안을 극복하는 특별 사업관리기법 발굴 · 시행
  - 협력사업 수행인력에 대한 신변안전지침 수립
  - 사업별로 사업수행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
  - KOICA 해외사무소를 통해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생생한 현지실정을 반영
    - ※ KOICA는 아프간 및 이라크 전쟁종료 직후 신속하게 현지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아국 공관 개설 및 타공여국 사무소 설치보다 앞서 사업 추진기반을 마련  
(아프간 2001.12.22 종전, 사무소설치는 2002.3.7 / 이라크 2003.5.1 종전, 사무소설치는 2003.5.9)
- 성공적인 재건복구 이행으로 국제적 위상 제고
  - 열악한 현지실정에도 국제사회와 약속한 재건복구사업을 성실히 수행
  - 파병지역인 아르빌 지역을 중심으로 전후재건복구사업 실시
  - 치안사정으로 인해 지연됐던 바그다드지역은 “원격관리에 의한 사업추진” 기반 마련
- 대 이라크 재건 프로젝트 본격착수
  - 2004년까지 단기효과 (Quick Impact) 사업

## 3. 향후 추진과제

### 가. 주요 정책과제

- 1) ODA 규모 확대
  - 우리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비해 대외원조 규모 미흡
    - 2005년 우리나라 대외원조 규모는 7.4억불로 GNI 대비 0.09%, 전년 대비 75.7% 증가
    - 이는 IDB 가입 등에 따른 국제기구 출자 · 출연에 기인 (2억불)
      - ※ 동 출연금 제외시 ODA/GNI 비율은 0.07% 수준으로 2005년도 OECD/DAC 회원국의 ODA/GNI 비율 평균 0.33%의 1/4 수준에 불과
  - 국가정책차원에서 ODA 확대목표 연도 및 규모 조정필요
    - '05년 11월, ‘국제개발협력 개선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정부의 당초 목표의 의미 퇴색 (2009년 0.1%/2015년 0.25%)
      - ☞ OECD/DAC 회원국의 ODA 증액추세를 고려,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비율 달성목표 재검토 필요

### 2) 무상원조 비중 확대

- OECD회원국은 무상원조 중심으로 ODA 실시
  - 유상원조는 일본, 스페인 등 일부국가만 실시
  - OECD/DAC 가입을 앞두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원조구조 필요
  - 무상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90% 수준으로 조정 필요
  - ※ DAC 권고사항 : ODA 양허율 86%, 언타이드화, 최빈국에는 무상원조 제공

### 3) 정부 무상원조사업 통합

- 여러부처가 중복 실시하고 있는 무상원조사업 KOICA 일원화
  - 「작은정부, 국고의 효율적 집행」에 배치
    - 정통부 : '정보통신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03.1월)' 을 제정, 인터넷봉사단 파견, IT연수생초청사업 실시
    - 복지부 : '03.12월 설립한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법제화를 골자로 한 '한국보건의료재단법' 제정('05.12월), 보건의료지원사업 실시
    - 문광부 : 문화봉사단파견사업 실시
- OECD 회원국 같이 무상원조는 전담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
  - 미국 USAID, 일본 JICA, 캐나다 CIDA, 스페인 AECI 등
  - ODA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부처간 교류가 아니고, 개발원조라는 국제적 과제를 실천하는 것으로서, 각 국가들은 공여기관을 설립하여 전담 수행

## 나. 평가시스템 강화

### 1) 평가범위의 확대

- 성과관리 자율평가 정착
  - 모든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중간, 종료평가 실시
- 사후평가 범위확대
  - 국별, 주제별, 이슈별 평가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평가 수행
  - 무상원조사업 전반에 대한 공동평가 실시

### 2) 평가품질의 향상

- 평가체제 재구축 및 피드백 강화
  - 평가규정 제정 및 우수사례(Best Practice) 피드백 강화
  - 평가결과와 조직 성과관리와의 연계
  - 평가 가이드라인 재조정
- 평가방법의 개발 및 직원평가역량 강화
  - 평가지침 및 평가매뉴얼 개정
  - 직원대상 평가교육 실시 및 평가전문인력 양성

### 3) 평가의 신뢰성 확보

- 제3자 평가 확대
  - 평가위원회 및 평가수행시 NGO 등 민간참여 강화
  - 성과평가결과 검토 및 사후평가를 위한 평가자문단 설치
  - 타 공여국 및 수원국과의 공동평가 실시

■ 평가결과의 공개 확대

- 홈페이지를 통한 평가결과 적시공개
- 평가연차보고서 발간을 통한 평가결과 체계화
- 영문보고서를 통해 수원국에 평가결과 통보
-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대국민 홍보 강화

- 대개도국 전수를 위해서는 한국 개발경험 자료화 필요

- 한국형 개발협력모델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기법연구

※ 타 공여국의 경우에도 자국의 행정경험 및 경제발전경험 전수를 목적으로 한·산하기관 설치운영 (일본 JICA 국제협력종합연구소 등)

## 다. 한국형 원조모델 발전

### 1) 우리만의 특화된 모델개발 및 발전

■ OECD 공여국 중 유일한 빈곤극복국가 장점 활용

- 빈곤퇴치국 (Poverty Cutter)의 국제적 명성을 유용하게 활용
- 대다수 개도국은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전수 받기를 희망
- 개도국은 개발원조 파트너로서 선진국보다 오히려 우리나라에 기대감 표명

■ 구체적인 개발과제와 기법 발굴

- 선진공여국과 차별화된 원조기법 연구
  -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 (분야별 원조상품개발)
  - 개도국이 우리나라를 발전모델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
  - 한국형 정책 프로그램 제시
- ※ 우리의 경제개발5개년계획, 새마을운동, 가족계획, 중소기업육성, 수출촉진, ICT발전, 기술인력양성, 공기업발전 등

### 2) 모델개발 연구강화

■ 우리나라 개발경험 연구 및 자료화

- 우리나라 경제개발경험에 대한 국내연구미흡

## 라. 사업별 개선과제

### 1) 연수생초청

■ 정책개발 역량강화 중점지원

- 국가별 개발과제를 고려한 국별과정 확대
  - 중점지원분야를 선정하여 지속발전 가능성 높이기
  - 사전조사, 정책협의, 워크숍 등 기초조사 강화
- ※ 2004년 이후 수원국 맞춤형 국별연수 점차 확대 중  
: 12.3% ('04) → 12.6% ('05) → 26.8% ('06)

■ 연수과정의 표준화 및 정례화

- 효과적인 기본과정 운영방향 수립
- 기본과정을 일정기간 지속운영 (3년 또는 5년)
- 기관간 약정을 통해 안정적 사업운영

■ 현지연수, 제3국 연수 점진적 확대

- 직업훈련 등 실습형 교육은 현지연수를 통해 수혜인원 확대 및 기술전수효과 제고
- ※ 미국, 호주, 일본 등은 현지연수를 적극 운영 중 (50%이상)
- 대륙별 거점국가를 선택, 제3국연수 확대 실시

※ KOICA-싱가폴 공동연수 과정 중 일부를 싱가포르의 CLMV 연수센터를 활용한 현지연수로 운영('04~)

#### ■ 기획 및 평가 기능강화

- 국제기구 공동사업 확대를 통한 사업기획의 선진화 및 선진원조기구의 Management Tool 도입추진
- 국제기구와의 공동사업 확대를 통한 기획능력 강화

#### ■ 국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 「주니어 코디네이터제도 활성화, 초중생 연수센터방문 정례화」등 민간참여 프로그램 지속 개발
- 다양한 민간참여 프로그램 개발로 협력사업 홍보 및 개발인식제고
  - ※ 초·중등 학생들에게 국제협력연수센터 개방, 주말 민박제도 운영, 연수생들과의 만남,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결, Foster Family 제도 등
  - ※ 학생 코디네이터 : 고등학생들을 시내견학 시 코디네이터로 활용('06~)

#### ■ 전문기관과 파트너십 강화

- 전문기관과 공동연수과정 개설 적극모색
- 타부처 및 민간과의 공동사업 추진을 적극 유도하여, 동반자 관계로 발전
  - ※ 원자력기술, 선거관리 등 국내 Co-funding을 통한 2개 분야 사업추진('06)

## 2) 해외봉사단파견

#### ■ 국별·분야별 봉사단 프로그램화 추진

- 파견형태를 다양화하고 민간부문과의 연계

#### 도 강화

- 시니어봉사단 : 2005년 파견인원은 21명으로 신규파견 인원의 3%
- 긴급재난구호봉사단 : 남아시아 지진해일 지원 등 총 199명 활동
- 산학협력 대학봉사단 : 2005년말 현재 6개 대학과 협정체결, 총 87명 파견
- KOICA-NGO 봉사단 : 2004년 이후 11개 NGO단체 9개국 73명 지원
  - ※ 2006년부터 해외원조단체협의회에 예산을 지원, NGO단체에서 직접 해외봉사단을 파견할 수 있도록 지원

#### ■ 타사업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사업효과 제고

-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형 사업수행에 봉사단 투입
  - ※ 프로그램사업에 인적요소로 해외봉사단을 연계

#### ■ 우수자원 확보방안 강구

- 전문기술 및 경험을 보유한 중장년층의 해외봉사 참여기회 확대
- 개도국 수요의 전문화 및 다양화에 부응
  - ※ '05년 기준, 시니어 비중은 전체인원의 3%로 향후 10% 수준까지 확대 추진
- 농림수산, 이공계 등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 국제협력요원 확대

#### ■ 업무의 전문화·체계화 추진

- 단원 국내훈련 등 단순 반복업무는 외부기관 업무위탁 확대
- 직원은 기획 및 평가 업무에 주력
- 수요발굴, 모집·선발 업무의 체계화
- 단원관리 및 활동지원 업무의 전문화

■ 우수자원 확보를 위한 홍보강화

- 좀 더 효과적이고 인상적인 홍보전략 개발
  - ※ 주요 일간지, 지방지, 대학신문 등의 인쇄매체 및 인터넷 광고
- TV등 주요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강한 이미지 전달
- 귀국봉사단을 통한 홍보활동 및 홍보채널 다양화

3) 프로젝트 · 개발조사

■ 하드웨어 위주에서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점차 전환

- 제도구축, 지식전달형 사업 등 소프트웨어 부분 확대
- 선진원조국의 경우 컨설팅 비중이 높은 점과 개도국 지속발전 등을 고려, 소프트웨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
- 다만, 사업의 결과가 무형적이기 때문에 수원국에서 이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비효율적이므로 신중하게 추진

■ 개발 컨설턴트 적극 활용

- 분야별로 전문화된 민간 컨설팅 그룹 발굴 · 육성 필요
- 분야별 사업시행단체 및 기업의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우수기관 육성
- ODA 설명회 등을 통해 협력사업 참여 주체의 다변화 노력

■ 개발사업 추진절차 신속화

- 사업추진 지연요소 개선을 통해 사업집행의

신속성 제고

- 사업개시 전년도에 사전조사를 종료하여 사업추진기간 단축
- 정부간 협의절차 신속화
  - ※ 협의의사록체결 후 신속하게 사업자 선정절차를 취하고 사무소 및 공관을 통하여 신속하게 구상서 교환

■ 사후관리 내실화

- 사업수행업체 계약시 기자재 사후관리 조항 강화
- 프로젝트 운영지원, 기술자문, 부품지원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발전 가능성 제고

4) 전문인력파견

■ 사업간 연계 강화

- 국별 원조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조사, 협의(선진국 일반적 형태)
- 수원국의 관련분야 정책수립 자문 및 제도 구축 지원업무 수행
- 일반전문가, 팀제 전문가, 프로그램 전문가 등

■ 전문가 Pool 시스템 개선

- 전문가 Pool 시스템 개선을 통한 우수전문가 상시 확보체제 구축
- 검증된 전문가와 자격요건만 갖춘 잠재적 전문가로 구분 · 운영
- 기 파견자의 활동성과 및 보고서 관리 체제 구축

■ 태권도사범파견사업 외부 위탁용역 검토



- 관리 및 운영업무 아웃소싱 검토
- 태권도협회 또는 국기원 등 비영리기관에 위탁, 태권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개선
- 의사과견사업 개선방안 검토
  - 수원국 의료서비스 제도 및 능력향상을 위한 기술이전 방식으로 전환

## 5) NGO 지원

- NGO 지원예산 확대
  - 국별 프로그램 추진에 있어 NGO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국별지원사업외 NGO 역량강화 지원예산 규모도 확대
    - ※ 1개 사업당 지원예산 규모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사업성과달성 및 우량사업 발굴
- 다년간 지원 제도 도입
  - 중기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발전가능한 사업추진
  - 민간단체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KOICA는 체계적 사업관리 및 평가 가능
    - ※ 신청단체 및 사업관련 자격요건, 심사기준 등 상세내용은 추후 확정하여 2007년도부터 도입 예정
- NGO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Study Tour 프로그램 확대, KOICA 주관 워크샵 개최, 해원협과의 협력확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 중장기적으로는 대학 등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 NGO 관련 강의과정 개설, 사업현장

탐방 프로젝트 공모제 등 실시

- NGO 중점지원국가 선정
  - KOICA 국별전략 수립후, NGO 중점협력지역 및 분야 제시
  - NGO들이 동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유도
    - ※ 예시 : 아프리카 지역은 식수공급, HIV/AIDS 관련사업 우선지원, 최빈국 지원우대 등

## 6) 다자협력

- 다자협력체제 재정립
  - 단순 현금공여는 지양하고 국제기구와의 공동사업 발굴
  - 무상협력사업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 다자협력의 국제동향 파악 강화
  - 단내외 세미나, 연구용역, 국제회의의 참가 등 정보수집 활동 강화
  - 선진공여국 및 DAC에 대한 최신 정책동향 파악 강화
    - ※ KOICA내 ODA 연구기능 강화, OECD 회의참석 등을 통해 정보수집 및 각종 논의 적극참여 필요
- 다자협력 평가시스템 마련
  - World Bank, UNDP 등 핵심 다자기관과의 평가네트워크 구축필요
  - 다자간 지원성과에 대한 정보 및 관련자료 교환 등

## 7) 홍보

- ODA 대국민 인지도 향상 노력 강화

- 청소년참여 프로그램 확대 개발
- 국제협력 특강 및 글짓기 공모전 등 활성화
  - ※ 2005년 초중고교생 대상 국제협력 특강이 237개교에 실시하여 전년대비 570% 증
  - ※ KOICA 글짓기 공모전 시상확대 및 해외현장 방문을 통해 393개 학교가 참여, 전년대비 60% 증

#### ■ 홍보수단의 다양화

##### •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 TV, 일간지 등 파급효과가 큰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활동 강화
  - ※ 합동취재 3회, 대언론홍보 총 1,133회(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광고홍보 12회, 유관기관 연계홍보 3회 등

##### • 다양한 채널을 활용 “KOICA 알리기” 주력

- 그간은 사업내용 홍보에 주력, 앞으로는 KOICA 기관홍보도 강화

- 기획 홍보, 계기 홍보, 온라인 홍보, 이벤트 홍보, 간담회 및 연찬회, 국제협력 연수, 여론 주도층 홍보 등

- 언론사 해외현장 취재 지원 및 업무협조약정 체결을 통하여 협력사업 및 KOICA 소개 등

※ KBS 다큐멘터리(2편, '05.10, 12), 중앙일보 UN 창설60주년 기획기사(6회, '05.10 - 11)

※ KOICA-연합뉴스간 업무협조 약정 체결 ('05.2), 'KOICA 리포트' 등 게재

#### ■ 정부의 국가이미지 제고노력에 적극참여

- 정부의 국가이미지 제고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KOICA 사업홍보와 해외홍보 협조 네트워크 구축

※ 국정홍보처, 정부부처 등과의 국제개발협력 공동홍보 노력 등